

뿌리의집 연차보고서 2020

KoRoot Annual Report 2020



해외입양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일하는 사단법인 뿌리의집의 2020년 연차보고서입니다.

This is the 2020 Annual Report of KoRoot, an civil society organization working for the rights of intercountry adoptees from Korea.

목차

여는글 · 3

게스트 이야기 · 5

활동보고 · 7

재정보고 · 17

후원해주신분들/후원안내 · 19

2020년 활동사진 · 21

이사회

이사장 김길자 (前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이사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사 장만순 (前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이사 함순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대표)
이사 김도현 (목사. 뿌리의집 대표)
감사 이성엽 (공인회계사. 우리회계법인)

임양인자문위원회

한분영(덴마크)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KAARN 코디네이터
로렌 맥컬로프(미국) 영문 에디터
제니 나(미국) 영문 에디터
크리스 박(미국) 서경대학교 교수(영어)
태미 코 로빈슨(미국) 한양대학교 교수(미술)

CONTENTS

Opening · 3

Guest story · 5

Report of Activities · 7

Financial Report · 17

Donors / Donation guide · 19

Highlights of 2020 · 21

Board of Directors

Chairperson Gil-ja Kim(former President, Kyung-In Women's University)
Director Kyeong-seok Suh(Co-president, Civic Activism for Advanced Korea)
Director Man-sun Jang(former Ambassad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Secretaria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Director Soon-hyo Ham(CEO, Conference House Dalgaebi)
Director Do-hyun Kim (President, KoRoot)
Auditor Seong-yeop Lee(Certified public accountant, Woori Accounting Firm)

Adoptee Advisory Board

Boon-Young Han(Denmark, Ph.D. student in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Network Coordinator of Korean Adoptee Adoption Research Network)
Lauren McCullough(USA, English editor)
Jenny Na(USA, English editor)
Kris Pak(USA, Professor of English, Seokyeong University)
Tammy Ko Robinson(USA, Professor of Art, Hanyang University)



대표

김도현 목사

사무국

게스트하우스 원장 공정애

기획실 황선미

기획실 최진경

권리옹호팀 김창선

운영지원팀 박창우

발행일 2021년 7월 21일

발행처 사단법인 뿌리의집

발행인 김도현

기획·편집 사단법인 뿌리의집 기획실

번역·감수 최진경 김창선

주소 0303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25-10

전화 02-3210-2451

팩스 02-3210-2453

홈페이지 www.koroot.org

디자인나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표지 일러스트 낸시 파파스

사단법인 뿌리의집은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해외입양인의 권리옹호에 적합하게 쓰이도록 노력합니다.

본 기관의 이사회, 입양인자문위원회 등 조직구성원 현황은 2021년 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ssuing Date July 21, 2021

Publishing Organization KoRoot

Publisher Do-hyun Kim

Writing and Editing KoRoot Planning Department

Translation and Proofreading Chris Kim, Jinkyung Choi

Address 125-10, Jahamu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Phone +82-2-3210-2451

Fax +82-2-3210-2453

Homepage www.koroot.org

Design Our Word is Our Weapon

Cover illust Nancy Pappas

President

Pastor Do-hyun Kim

Staff

Jung-ae Kong, Guest House Director

Sun-mi Hwang, General Manager, Planning Department

Jinkyung Choi, Coordinator, Planning Department

Chris Kim, Manager, Advocacy Team

Chang-woo Park, Manager, Administration Team

KoRoot uses properly and transparently the valuable donations from our donors for protecting overseas adoptee's rights.

The name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 Adoptee Advisory Board, President and Staff were as of February 25, 2021.

2020년 뿌리의집을 돌아보며...

회고컨데, 2020년 뿌리의집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 사태와 정인이의 죽음이다. 둘 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단순한 말 뒤에는 거대한 죽음의 파도, 가족들의 비극, 가능하고 수습하기 어려운 참혹한 이별의 방식이 깃들여 있다. 정인이의 죽음의 드러남 뒤에도 헤아릴 수 없는 아동학대와 사망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뿌리의집은 2020년을 살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을 당한 뿌리의집은 거의 빈집으로 1년을 살았다. 이는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모국방문과 가족찾기를 가슴에 묻은 채로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러 해 전의 일이다. 뿌리의집 식탁에서 한 입양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입양인이 했던 말이 마음 한 구석을 건드린다. 그는 말했다. 4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후 “한국 방문을 위해 경비를 모으고 휴가를 내서, 모국을 방문하고 가족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가족을 찾았지만, 제 한국 아버지는 석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허망하네요.” 코로나19가 가로막고 선 이 세상은 단순히 건강의 위협과 경제의 몰락에 시달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인류사회에 가하는 치명적인 공격은 인간들의 관계망과 우정과 사랑에 관련된 일상의 세계이다. 이런 일로 가장 아픈 경험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이 아닐까 싶어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는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2021년에 들어서서도 지속되고 있다. 아픔과 안타까움이 거듭되는 일상이다.

정인이의 죽음도 다르지 않다.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이 땅 아동들의 학대와 죽음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깊은 바다의 보이지 않는 해류처럼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정인이의 죽음은 한국사회가 아동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사회인지를 드러내어 주고 있다. 작년 12월에 정인이의 묘소를 다녀온 후, 이런 아픈 죽음의 연쇄를 끊어 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며, 2021년에 들어 연대단체들과 함께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마침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언론들에서도 입양절차에 대한 공공의 개입 필요성이라고 하는 화두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뿌리의집은 2020년 한 해를 최선의 삶을 살 아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 하나는 제1회 입양 진실의 날을 기념한 일이다. 연대단체들과의 비대면 회의가 연속되는 한 해였다. 이런 수고에 기초해서 입양인과 연대단체들은 5월 11일에는 ‘입양 진실의 날’ 선언문을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내었고, 같은 날 계획했던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Reflection on the year 2020 at KoRoot

Looking back to the year 2020, the key agenda of KoRoot of all were ‘COVID-19’ and ‘the death of Jung-in’. Both are also still on-going. Behind a mere word, “COVID-19”, there are massive waves of death, tragedies of family, unmeasurable and untreatable ways of cruel separation crashing in. After the revealed death of Jung-in, uncountable waves of child abuse and death cases keep swaying.

KoRoot lived through the year 2020 with these backdrops. For a year during the pandemic, it was an almost empty house. It means that many adoptees’ desire for visiting Korea and searching for their origins is only buried in their hearts. A comment from an adoptee at the KoRoot’s dining table many years ago now touches on a corner of my mind. It is said that “After 40 long years, I saved travel costs, got a vacation, visited Korea and found my family. Now I found out my Korean father passed away three months ago. I am feeling so empty.” The world blocked by the COVID-19 is not only suffering from the threats to health or the downfall of the economy. It is human relationships, friendship and love in our everyday lives that were under critical attacks. I’ve been on pins and needles with the concerns of adoptees and birth families who seem to be in this heartbreaking journey. The era of pandemic has not been finished, but continues in 2021. It’s a day to day life with pain and worries.

Nothing much was different in regards to Jung-in’s case. The pain is present and continuous. It is horrible to think that the invisible abuses and killings towards the children in this country are like ocean currents in the deep sea moving under our society endlessly. Case of Jung-in revealed how this society treats a child. After visiting Jung-in’s grave in December last year, KoRoot and other civil organizations are doing our best to reflect on ourselves and the future tasks. The coalition is now in action to enhance the current practices and awareness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order to stop the painful chain of death. The bills for revising laws on child abuse and special investigation are now submitted for review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genda of public responsibility on adoption processes are gaining power and media attention more and more.

Meanwhile, KoRoot has put tireless efforts to make the best in the year 2020. One of the efforts was the

는 9월 9일에 개최했다.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국제컨퍼런스는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입양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돕는 일이었다. 봄과 가을에는 ‘입양인과의 대화 시리즈’라는 주제를 내걸고 한국 입양 제도의 문제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출판사업의 성과로는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를 발간했고, 나머지 두 권(‘국가 간 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한국어판,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의 영문판 발간)을 위해 속도를 내었고, 2021년 발간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도 소소하게 가족 찾기에 나선 입양인들을 돕는 일, 위기에 내어 몰린 입양인들에게 소박하나마 손길을 내미는 일, 우리 사회의 입양 의제를 가지고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인식 개선과 제도 개혁의 과제들을 안고 씨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한 해였다.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바, 나는 진심으로 전염병이 도는 세상 한 가운데서 뿌리의집과 연대하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나의 감사를 표하고 싶다. 입양인들, 후원인들, 연대단체들과 활동가들, 이사회와 뿌리의집 직원들, Family for Every Child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입었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중에, 우리 사회가 정인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 다시 말하면,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후 68년 해외입양의 역사라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 연차 보고서의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사단법인 뿌리의집 대표 김도현

commemoration of the 1st Adoption Truth Day. With other organizations in solidarity, the series of online discussions were held. On May 11th, the press release was published to announce ‘Declaration on Adoption Truth Day’, and on September 9th, the Adoption Truth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which was originally scheduled in May. The on and off-line conference with the theme of “Adoption Truth: Issues of Records and Identity” offered an opportunity for Korean society and international allies to reach further towards the truth of the adoption system. KoRoot also organized an educational program under the title of “Dialogues with Adoptees” to take a deeper look at the issues of Korean adoption system last spring and autumn.

We published the Korean edition of “Mixed Koreans: Our Stories” in 2020, and started to work on two other books- the Korean version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English version of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which will be out in 2021.

Other services including supporting birth family search, emergency support for adoptees staying in Korea were provided as usual. Advocacy actions with other colleagues in solidarity with adoption issues were carried out for raising awareness and asking for better policies including introduction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s the last but the most important one, I sincerely express my gratitude to all people who supported KoRoot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adoptees, donors, solidarity organisations and their members, board of directors, staff of KoRoot, Family for Every Child, and many more...

With the hope of getting over the COVID-19 crisis in 2021, we ask for the responsible answers from our society to the death of Jung-in. Also we hope this year for Korean Society to get off from the troublesome path of the 68 year-old intercountry adoption since its beginning in 1953.

July 2021
Pastor Do-hyun Kim, President of KoRoot

2020년 코로나팬더믹 상황에도 뿌리의집은 해외입양인 게스트가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과 겨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뿌리의집에 머문 두 명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Even during the Pandemic in 2020, Koroot was the space for overseas adoptees to stay. Here we are introducing two guests who lived at KoRoot during their visit to Korea to study Korean last autumn and winter.



사진 왼쪽(위) 토마스, 공정애, 크리스틴
왼쪽(아래) 김도현, 낸시

Picture left (top) Thomas, Jung-Ae Kong, and Kristin
Bottom left: Do-Hyun Kim, Nancy

토마스 맥켈로이 김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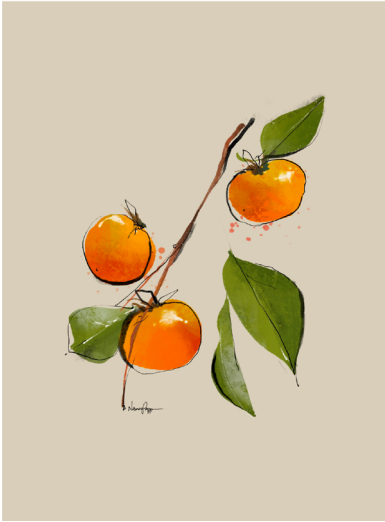
수년간 꿈꿔온 한국어 공부를 위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온 토미라고 합니다. GOA'L과 입양기관을 통해 받은 장학금으로 이화여대에서 공부하는 3개월동안 저는 뿌리의집에 머물렀습니다. 뿌리의집에 살기로 한 것은 정말 잘 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도 모르는 낯선 나라로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외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뿌리의집에서 머물며,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곳의 보다 넓은 입양인 공동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은 친절하고 성실했으며, 김도현 목사님과 공정애 사모님은 입양인들이 한국에 오면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매우 잘 이해하는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탁에서 함께 아침을 먹거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던 시간들이 그리웁습니다. 제가 어려서 지지를 받을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특히 그 첫 몇달간은 뿌리의집을 나와 스스로 살게 되기까지 뿌리의집은 타국에서의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Thomas McElroy

My name is Tommy and I came from Seattle, WA to learn Korean since it is something I have dreamt of doing for many years now. I lived at KoRoot for my first 3 months while studying at Ewha with scholarships from my adoption agency and GOA'L.

Deciding to live at KoRoot was a great decision. Moving to a new country at a young age and not knowing a single person here was very difficult and extremely lonely. But despite covid, living at KoRoot allowed me to make friends with more adoptees in the broader Adoptee Community here. The entire staff was extremely kind and hardworking. Mrs. Kong and Pastor Kim are so sweet and understand how adoptees may feel when coming to Korea. I miss coming downstairs for breakfast at the dining table and studying there late into the evenings. Since I am very young, I really needed a support network. Especially in my first few months here. By the time I moved out to live on my own, KoRoot felt like a nice home in this foreign country.



Nancy Pappas의 일러스트

내가 앞으로 항상 기억할 뿌리의 집 - 매달려 있던 밝은 색의 감, 공정에 사모님의 정원, 오아시스.

Illustration by Nancy Pappas

KoRoot as I'll always remember it, the bright persimmons overhead, Mrs. Kong's garden, an oasis.

낸시 파파스 김희주

2019년 친가족을 만나기위해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 머물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조언으로 '입양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라는 뿌리의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리의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감정적으로 과도한 경험들을 할때, 그 곳은 편안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자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향에 온 것처럼 환영해주는 직원들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이해를 해 주는 입양인들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2020년 뿌리의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도로 된 건물 정면에 짙은 감청색의 그림자를 드리우던, 푸른 하늘에 박힌 듯한 오렌지색 열매를 품었던 휘영청 감나무가 그리웠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서울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지만, 뿌리의집에서의 하루하루는 안전하였습니다. 그 익숙한 집,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이 들락날락하며 친근한 인사와 점심식사를 나누던, 격려와 이해,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인과 인정들이 그립습니다.

뿌리의집은 언제나 제겐 첫번째 한국에서의 집일 것입니다.

Nancy Pappas

In 2019 I prepared for a trip to Seoul to meet my birth family. I had no idea how to plan, where to go, where to eat, or where to stay. With some guidance from friends, I was directed to KoRoot, "a guesthouse for adoptees". But it is so much more than that. I found a sanctuary and safe haven for when the experience felt all too much, where I could retreat with ease and reflect on the happenings around me. I was met with staff members who welcomed me home to my motherland and adoptees and friends who understood me in ways others simply could not.

I was eager to return to KoRoot fall of 2020. I yearned for the persimmon tree sweeping over the house, casting deep navy shadows across the stone facade, the orange fruit speckling the blue sky. While returning to Seoul during a pandemic was challenging, my day to day life at KoRoot remained safe and secure. I had missed the familiarity of the house, Mrs. Kong and Pastor Kim, and other staff members coming in and out, the friendly hello's and shared lunches, the encouragement, acknowledgement, validation that I'd made the right decision.

KoRoot will always be my first Korean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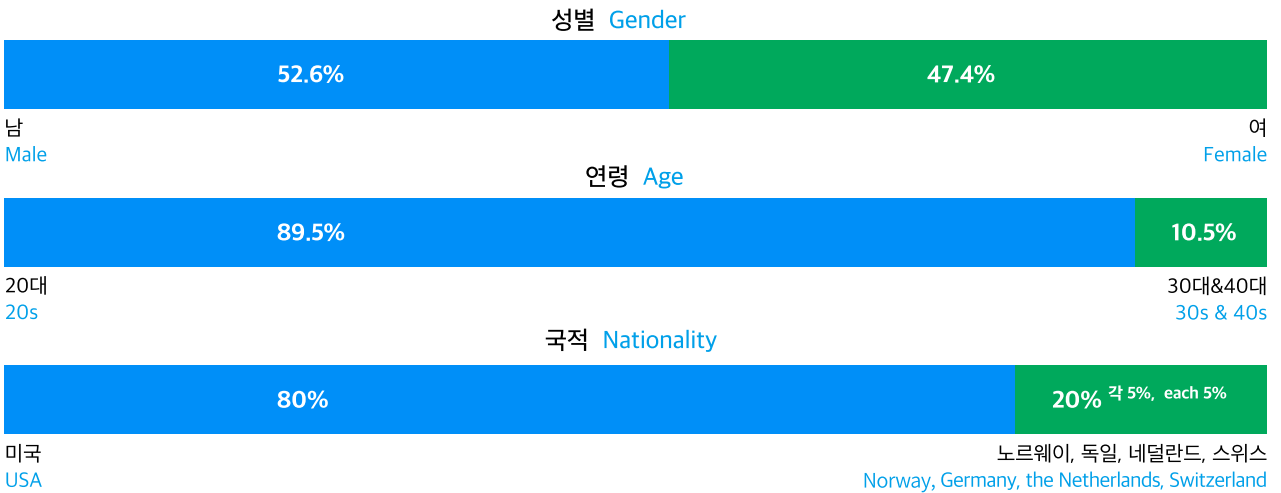
2020 통계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30%수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해외입양인게스트가 상반기는 거의 전무했고, 하반기에 한국어 연수를 위한 장기숙박 입양인 게스트가 일부 숙박하였습니다.

2020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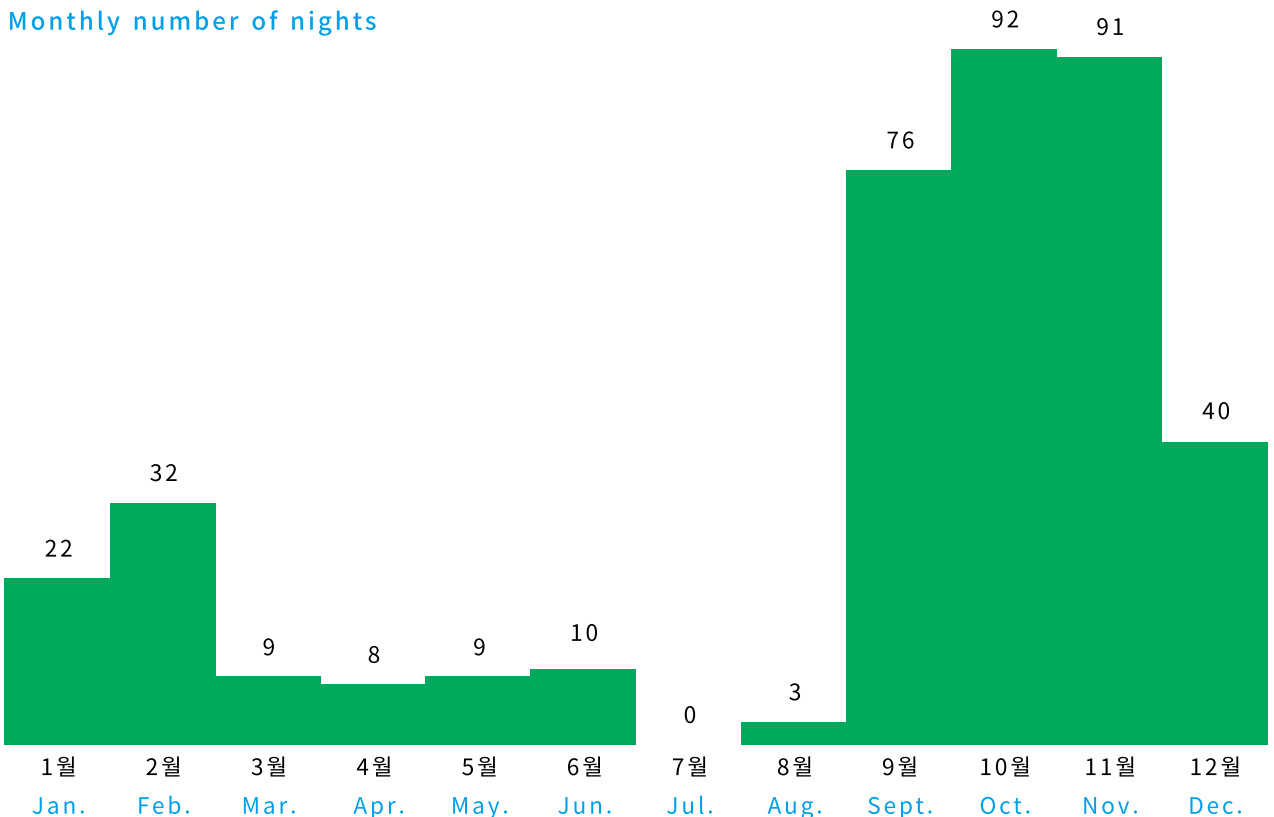
Due to the pandemic, the operation of the guesthouse in 2020 was 30% of the average year. In the first half, there were almost no guests, and in the second half, a few long-term guests for Korean studies stayed.

숙박현황 19명 392박 Total 19 guests stayed for 392 nights



월별 숙박 수

Monthly number of nights



뿌리의집의 2020년

KoRoot's 2020

1월	설 명절행사	Jan.	<i>Seolnal</i> Event
2월	사단법인 뿌리의집 총회	Feb.	General Assembly
5월	입양진실의날 선언문 낭독	May.	Declaration on Adoption Truths Day
6월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①	Jun.	Dialogues with Adoptees Part 1.
7월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②	Jul.	Dialogues with Adoptees Part 2.
9월	추석 명절행사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Sept.	<i>Chuseok</i> Event The 1st Adoption Truth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10월	『인종주의의 멍을 넘어서』 발간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③	Oct.	Publication of <i>Mixed Korean: Our Stories</i> Korean Edition Dialogues with Adoptees Part 3.
11월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④	Nov.	Dialogues with Adoptees Part 4.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 개최

국가가 2006년에 제정한 ‘입양의 날’은 입양삼자(입양인, 입양 부모, 친생가족(미혼모))의 삶의 이야기가 골고루 담겨야만 한다. 그러나 ‘입양의 날’에 친생가족과 입양인의 목소리를 낼 공간은 없었습니다.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및 권리옹호단체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싱글맘의 날’을 기념해왔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연대단체들은 이를 ‘싱글맘의 날’ 운동의 성과로 이해하고, 2020년 부터는 매년 5월 11일을 ‘입양 진실의 날’로 재명명하여, 입양삼자의 또 다른 핵심주체인 입양인들의 삶에 깃든 목소리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국제컨퍼런스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

- 일시: 2020년 9월 9일(수요일) 13:00~17:20
- 장소: 뿌리의집
- 진행: 온라인(줌 웨비나, 입양진실의날 유튜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정춘숙·최종윤·서영교·강병원(더불어민주당)의원,
325KAMRA (해외입양인연합), TheRUTHtable,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협회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사)한국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뿌리의집
- 네트워크
KARMA, Change, 국내입양인연대, 친생가족모임민들레회, 기독교연회
- 공식후원: Family for Every Child
- 통역후원: 에퀴코리아

*입양진실의날 캠페인은 2020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20회 여성마라톤 with 랜선스포츠’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입양진실의날 국제컨퍼런스의 목표는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의 부실 문제(멸실·왜곡·조작·위조·교체)로 인해 겪는 인권 훼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기록 접근권, 정체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대단체들은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1일을 입양진실의날로 선언, 입양인과 연대단체가 유튜브를 통해 ‘입양진실의날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여 9월 9일에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입양인들의 기록과 정체성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표명했습니다. 입양기록에 관련된 현 국가 시스템

The 1st Adoption Truth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Adoption Justice: Issues of Records and Identity」

The Adoption Day enacted by Korean government by 2006 should embrace the stories from three parties of adoption-adoptees, adoptive parents, birth families(or unwed mothers). However, there was only limited space allotted for birth families and adoptees’ voices. To correct the imbalance, organizations of unwed mothers, single parents, overseas adoptees and supporters have commemorated “Single Mom’s Day” for 9 years since 2011. Finally in 2019, the Government announced May 10th as ‘Single Parent Day’ by prioritizing the original family’s care for children to the adop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lidarity with KoRoot acknowledged this as an outcome of the ‘Single Mom’s Day’ movement and renamed May 11th as ‘the Adoption Truth Day’ in 2020. The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campaign were organized to express adoptees’ voices and the truth behind the adoption system.

The 1st Adoption Truth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Adoption Justice: Issues of Records and Identity”

- Date and Time: September 9th, 2020(Wed.) 13:00~17:20
- Venue: KoRoot
- Format: Online (Zoom Webinar, Adoption Truth Day Youtube)
- Co-organizers
National Assembly Member Choonsook Jeong, Jongyoon Choi, Younggyo Seo, Byeongwon Kang (Democratic Party of Korea), 325KAMRA, TheRUTHtable, Korean Unwed Mothers’ Family Association, I’m Mom, Intree,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KoRoot
- Partner Networks
KARMA, Change, Domestic Adoptees’ solidarity, Mindeulae, Christian Women’s Network
- Sponsors: Family for Every Child, EquiKorea(Interpretation)

* Campaign : Adoption Truth Day Campaign was held from 11th to 20th of September, 2020, as a part of ‘the 20th Women’s Marathon with Online Sports’

The objectives of the conference were to raise government’s awareness on their responsibilities in human rights violation due to the issues of adoption records(loss, omission, modification, forgery, change, etc.). Also it aims to discuss the legal issues regarding adoptee’s right to access their adoption records and identity.

Co-organizers formed an organizing committee and announced May 11th as the Adoption Truth Day and read out the declaration through Youtube. The conference

의 부적절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 아카이빙의 중요성과 국가사무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4명의 국회의원과 9개 기관의 공동주최, 5개 기관의 네트워크 참여와 2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된 입양진실의날 컨퍼런스에는 총 13명의 발제자와 17개국 이상 200여명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참가했습니다. 특히 참가자의 50%는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이 참여를 했고, 그 외에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학자 및 연구자, 언론기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권리옹호 국제네트워크 Family for Every Child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입양기록의 취약성을 드러낸 이번 컨퍼런스가 입양인 당사자들의 결속력과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입양기록의 국가사무화를 이루어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입양특례법의 상충되는 부분을 풀어아가는 등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과제를 풀어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설문응답

•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입양인 분들의 증언 세션, 그리고 입양인과 비입양인의 참여."
 "현재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형식을 바꾸어서 전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점."
 "많은 한국의 단체들이 참여한 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입양인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하여, 그들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새롭게 알게되었거나 가장 관심있는 부분

"너무 당연하게도 입양된 아이들의 정체성은 매우 자주 혼동되기도 하고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일부 공신력 있는 한국 기관은 원본 기록이 권위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양아카이브 제안."

was originally scheduled on that day, but postponed to September 9th as a virtual conference. With the theme of "Adoption Justice: Issues of Records and Identity", the cases of false records and identity issues of adoptees were presented. Also the speakers emphasized that it is not an individual's problem but a social issue. It was meaningful to point out the limit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raise the voices that adoption records should be managed properly by the government.

Fou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in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co-organizers, 5 networks and two sponsoring organizations made this conference possible. Also, 13 speakers and 200 audiences from over 17 countries participated through Zoom and Youtube. Especially 50% of participants were adoptees living across the globe, and various experts from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searchers, journalists also showed their interests. This conference was a part of the National Advocacy Program sponsored by the Family for Every Child, an international network of practitioners in child rights.

We hope this conference brings adoptees' bonding and motivations to reveal the importance of adoption records. Moving forward, we would like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to publicizing the adoption process and conflicting laws on privacy and adoptees' rights.

Participants' survey response

• most impressive part

"First session adoptee stories. Participation by Non/adoptees."
 "Reaching such a broad group of people given the current situation with COVID-19 and changing the format to an online format."
 "To have that many Korean organisations participate, to hear new stories from adoptees and to have the Korean people react to those stories to see what they can change."

• some of the new things or interests you learned

"Obviously the identities of the adopted children were very often mixed up/switched!"
 "That at least some official Korean entities acknowledge that original records are a matter of trust in an authoritative source."
 "Proposals on adoption archiving."

국제입양법 워크숍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 개최

1953년 이후 지난 67년여간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최대 국제입양 송출국으로 20만명을 해외로 입양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권리, 그들의 출생과 입양에 관련된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당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입양법 워크숍 ‘입양인들과의 대화 시리즈: 한국의 국제입양 법, 정책 그리고 관행’을 개최하였습니다.

Workshop Series on International Adoption Law, ‘Dialogues with Adoptees’

For the last 67 years since 1953, 2 billion children were emigrated for adoption from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ly well-known sending country of adoptees. KoRoot has supported adult adoptees to know about their identity and to have access to their birth and adoption records. As an effort of doing so, KoRoot organized a series of workshops on international law, “Dialogues with Adoptees: Korean Law, Policies, and Practices of Intercountry Adoption” in order to give adoptees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o empower them.

구분 Title	주제 (아젠다) Agenda	강연자 Speaker/Facilitator	일시/장소 Time/Venue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1) 특강	한국의 국제입양 법, 제도, 관행의 형성과 전개 (1950년대~현재) <고아입양법제의 시작과 전세계적 영향을 중심으로>	이경은 박사	6월 27일(토) 서울시NPO지원센터
Dialogues with Adoptees 1. Lectur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Law, Institutions, and Practices (1950s~current) <Focusing on the beginning of Orphan Adoption Law and its global impact>	Dr. Kyungeun Lee	June 27th (Sat.) Seoul NPO Support Center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2) 워크숍	입양특례법과 Right to Origin	이경은 박사	7월 11일(토), 7월 18일(토) 뿌리의집
Dialogues with Adoptees 2. Workshop	Special Law on Adoption and Right to Origin	Dr. Kyungeun Lee Ross Oke Jun-Young Kim, Journalist	July 11th(Sat.), July 18th(Sat.) KoRoot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3) 특강	67년간의 한국고아입양의 유산 그리고 입양인의 자기 정체성을 알 권리 침해	이경은 박사	10월 17일(토) 서울시NPO지원센터
Dialogues with Adoptees 3. Lecture	Legacy of Korea's Orphan Adoptions for 67 Years and Violation of Adoptees' Rights to Know their Identity	Dr. Kyungeun Lee	Oct. 17th (Sat.) Seoul NPO Support Center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4) 워크숍	입양인 액티비즘	이경은 박사 로스 오크(Ross Oke) 조나스 에버러(Jonas Eberle) 강태리 변호사	10월 31일(토), 11월 7일(토) 서울시NPO지원센터
Dialogues with Adoptees 4. Workshop	Adoptee Activism	Dr. Kyungeun Lee Ross Oke Jonas Eberle Attorney Teri Kang	Oct 31st(Sat.), Nov.7th(Sat.) Seoul NPO Support Center

총 4차에 걸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입양인 당사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강연을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총 120여 명이 참석해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뿌리의집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알권리 및 학자, 법률가, 단체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국제입양법(입양특례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입양인 당사자의 한국의 국제입양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당사자의 액티비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특강의 경우, 현장행사와 온라인 동영상 라이브를 동시진행(Facebook Live, Youtube Live)하여 국내외에 거주하는 입양인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동영상으로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설문응답

"이경은 박사는 그녀의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이며, 그녀는 내가 깊은 통찰력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매우 매력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법률과 관행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나는 세계 역사 발전이 어떻게 개별 국가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또한 정치가 종종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배경 정보와 현 상황에 대한 개요는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유익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아동 복지와 인권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통 주제는 모든 것을 멋지게 묶었습니다."

Total four workshops were organized in 2020 with over 120 participants, and the sessions were facilitated in English with the purpose of securing adoptee's rights to know. The series was sponso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grant program for public actions.

KoRoot shared the knowledge on Intercountry Adoption Law (Special Law on Adoption) with adoptees, scholars, legal experts, civil society activists with this program. By enhancing participants' understanding on intercountry adoption law, we intended to empower their actions. Considering COVID-19 situation, lectures were aired through Facebook and Youtube live and adoptees living overseas could participate in this way. The recorded video clips are also uploaded on KoRoot's Facebook and Youtube.

Participants' Survey response

"Doctor Kyung-eun Lee is a true expert in her field and she presented the subject matter in a very engaging way so that I could gain deep insights and new knowledge."

"It is great to see that there is an analysis and reflection going on within Korean society about Korean laws and practic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I did learn a lot about how world historical developments end up influencing individual countries and individual persons. I also learned that politics often trump individuals' interests."

"The in-depth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s legal system and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as informative for someone with a minimal knowledge of the legal system in Korea. All information was in the context of child welfare and human rights. This common theme tied everything together nicely."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발간

원제 Mixed Korean: Our Stories

캐서린 김, 체리사 김, 소라 김 러셀, 메리 김 아널드 엮음 | 강미경 옮김

2020년 10월 30일 발행 | 427쪽 | 18,000원

Korean Edition of “Mixed Korean: Our Stories” Published

Korean Title: 『Injongjueuiui deutseul neomeoseo: honhyul hangukin, honhyul ipyangin iyagi』

Edited by Cherrissa Kim, Sora Kim-Russell, Katherine Kim, and Mary-Kim Arnold

Translated by Mikyung Kang

Published on Oct. 30th, 2020, 427 pages, 18,000 KRW.



뿌리의집 출판사는 혼혈 한국인과 혼혈 입양인 38명의 이야기를 담아『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알지 못했던 해외 입양에 관한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Mixed Korean: Our Stories』를 번역한 책으로 편집진 캐서린 김, 체리사 김, 소라 김 러셀, 메리 김 아널드가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2018년 미국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문 편집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혼혈인들이 직면하는 딜레마와 혼혈 한국인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해내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어판 펴내는 이 뿌리의집 김도현 대표는 “이 책은 혼혈 한국인과 혼혈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긴 책입니다. 50년대의 한국전쟁으로부터 이어진 미국 군대의 한국 주둔이 일으킨 긴 파장과 그림자 안에서 온 몸을 부대끼며 살았던, 그리고 오히려 인종주의의 본산 국가나 다름없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던, 혼혈 한국인과 혼혈 입양인들의 삶의 여정에 대한 리얼리즘이 담긴 책이기에, 어쩌면 이 책은 냉전시대와 인종차별이 소용돌이치는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의 눈이라 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독자들은 우리의 과거사를 들여다볼 역사의 눈을 이 책을 통해서 선물로 받습니다.”고 이 책의 발간 의미를 밝혔습니다.

출판사 뿌리의집은 한국사회에 입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입양담론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입양관련 서적 총 8권

KoRoot Published the Korean version of “Mixed Korean: Our Stories” which includes stories of 38 mixed-race Koreans and adoptees. This book reveals the history of adoption from Korea which Korean society did not know well. The book wa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USA in 2018 and edited by Cherrissa Kim, Sora Kim-Russell, Katherine Kim, and Mary-Kim Arnold.

This book can be introduced from the summary from the back cover: “From the struggles of the Korean War, to the modern dilemmas faced by those who are mixed race, comes an assortment of narratives that capture the essence of what it is to be a mixed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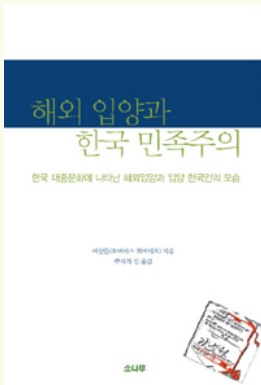
Do-hyun Kim, the president of KoRoot, explained about the meaning of this publication. “This book embraces the voices of mixed-race Koreans and mixed-race Adoptees. It includes the impact of US Army’s residence in Korea since the Korean War in the 50s, and the life journey of mixed-race Koreans and adoptees who had to live under the shadow of this history and racism in Korea and the US. Therefore, this book can be an eye to look through the era of the Cold War and waves of racism. Korean readers would appreciate this book as a present which gives eyes to look through our past.

KoRoot, as a publisher, has published 8 books since 2008 in order to introduce various perspectives on adoption to

을 출판하였으며,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2012년), 원초적 상처 (2013년), 입양치유(2013년), 구원과 밀매(2014년), 한국 해외 입양(2015년),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2019년)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Korean society and to diversify adoption discourses. The books published are Korean translation of “Comforting and Orphaned Nation”(2008). “Outsiders Within”(2012), “Primal Wound”(2013), “Adoption Healing”(2013), “The Child Catchers”(2014),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2015),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2019), and “Mixed Korean:Our Stories”(2020).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뿌리의집이 발간한 총 8권의 해외입양 관련 도서
8 Books on Adoption Published by KoRoot from 2008 to 2020



2008년 발간
Published in 2008



2012년 발간
Published i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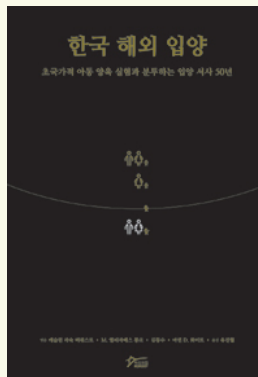
2013년 발간
Published in 2013



2013년 발간
Published i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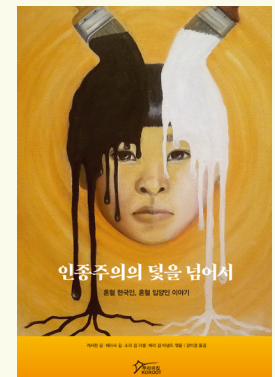
2014년 발간
Published in 2014



2015년 발간
Published in 2015



2019년 발간
Published in 2019



2020년 발간
Published in 2020

해외입양인과 함께하는 설잔치, 추석잔치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뿌리의집은 해외입양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풍물패의 공연을 즐깁니다. 2020년에는 1월 25일에 62여 명이 뿌리의집에 모여 설잔치를, 9월 26일에 50명이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 모여 추석잔치를 함께했습니다.

설 잔치

- 공연: 입양인 풍물패 메아리팀
- 음식준비: 최인자, 익수스교회팀(강순희, 김현교, 방옥희)
- 음식후원: 김대욱(브라우니), 달개비(불고기와 김치), 블루베리(밀감), 엄혜경(곶감), 정혜원(과일 및 생필품), 김늘빛(사과)
- 당일봉사: 김상수, 김서희, 김석란, 김은자 외 1인, 익수스교회팀(김서영, 김신, 김현태, 양은총, 한대송)
- 재정후원: 강순희, 김상철, 김선정, 손정임, 송원용, 우영자, 이나, 장재성, 정영자, Doris Kim

추석 잔치

2020년 추석잔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금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50인 이하로 초대하여, 대금 연주자 김기엽(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단원)님의 공연과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Seolnal and Chuseok Party with Adoptees

Every year KoRoot celebrates traditional holidays- *Seolnal*(Lunar New Year) and *Chuseok*(Korean Thanksgiving) and enjoys food and traditional drum beats together with adoptees. In 2020, 62 people gathered at KoRoot for *Seolnal* on Jan. 25th and 50 people participated at *Chuseok* Party at the Conference House Dalgaebi on Sept. 26th.

Seolnal Party

- Performance: Adoptee Traditional Drum Group *Meari*
- Food Preparation: Inja Choi, Exus Church Team(Soonhui Kang, Hyungyo Kim, Okhee Bang)
- Food Donation: Daewook Kim(Brownies), *Dalgaebi*(Bulgogi and Kimchi), Blueberry(Tangerine), Hyekyung Yum(Dried Persimmons), Hyewon Jung(Fruits and Necessities), Neulbit Kim(Apples)
- Volunteering: Sangsu Kim, Seohui Kim, Seokran Kim, Eunja Kim and company, Exus Church team(Seoyung Kim, Shin Kim, Hyuntae Kim, Eunchong Yang, Daesong Han)
- Financial Donation: Soonhui Jang, Sangchul Kim, Sunjung Kim, Jeongim Sohn, Wonyong Song, Youngja Woo, Inah, Jaesung Jang, Youngja Jung, Doris Kim

Chuseok Party

The Chuseok Party in 2020 was sponsor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Rights of the Child. Due to the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limited to 50. Mr. Kiyeop Kim, a Daegeum(traditional pipe) player performed at the party and the participants shared dinner.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거나 해외에 있는 입양인들이 국적 회복, 비자발급, 생활정보, 가족찾기 등의 각종 문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뿌리의집이 알고있는 정보를 토대로 안내하고 입양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여명 약 264건의 법률, 가족찾기, 통번역, 생활정보 등을 대면, 비대면, 이메일, SNS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소통하였습니다.

Adoptees staying in Korea for a long term or those living overseas asks various questions including recovering nationality, visa, living information, search for birth family, etc. Responding to those questions, KoRoot provides information and communicates with adoptees actively. In 2020, we supported 50 people's 264 cases of legal inquiries, family search, translation/interpretation, living information via internet or face-to-face services.

뿌리의집의 긴급후원캠페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세계로 인해 뿌리의집도 어려움에 당면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도 멈추게 하였고, 뿌리의집 게스트 하우스도 텅 빈 집이 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뿌리의집은 2020년에 계획된 의미있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지난 18년간 뿌리의집과 인연을 맺어온 약 1,000분에게 긴급후원캠페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캠페인에 총 40여건의 일시후원과 80여분이 소액정기후원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뿌리의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후원자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시작한 모든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Campaign for Special Donation to KoRoot

Due to COVID-19 outbreak in 2020, KoRoot had to face an unprecedented situation. Adoptee's visit to Korea has stopped and our guesthouse has become empty. To overcome this unexpected crisis and proceed with scheduled programs and activities in 2020, KoRoot sent out a message to 1,000 people whom we had got in touch with for the last 18 years and asked for donations.

In this campaign from April to June, 40 people donated once and 80 people became our new monthly donors. We would like to send our sincere gratitude to those who listened to our stories and decided to walk with us as donors.

사단법인 뿌리의집에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해외입양인의 권리 옹호활동 및 해외입양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사용됩니다.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이 해외입양인, 더 나아가 친생가족, 미혼모의 삶이 나아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본 기관은 매년 1월 내부 회계감사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받고 이 내용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월 홈페이지(www.koroot.org)를 통해 회계보고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Donations to KoRoot are used for actions to protect adoptee's rights and for operation of our guesthouse. We will endlessly reflect on our actions and put our utmost efforts to use the valuable intentions of donors for adoptees, birth families, and single mother's lives to be better.

Our organization takes an annual audit internally every January and submits the audit report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Also the financial report is uploaded to our homepage(www.koroot.org) every year for the public.

감사보고서

2020년 2월 7일

저는 사단법인 뿌리의집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작성된 2020 회계연도(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회계 장부상의 거래내역과 외부 증빙, 월별 회계결산과 이에 따른 증빙을 표본 추출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단법인 뿌리의집이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발생주의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뿌리의집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입양인 대상 게스트하우스 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원캠페인을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자 확대의 성과를 가져왔고 법인의 재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사단법인 뿌리의집 20주년인 2023년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조직운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수립과 재정안정화 및 공간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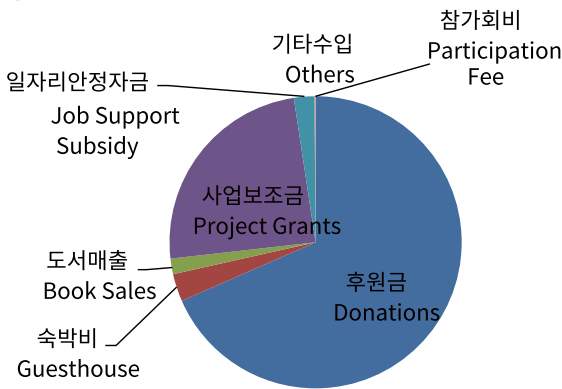
사단법인 뿌리의집

감사 이성엽

(인)

이성엽

수입 Revenues



	금액(Won)	비율(%)
후원금 Donations	170,237,176	68.4%
숙박비 Guesthouse	7,608,000	3.1%
도서매출 Book Sales	4,280,230	1.7%
사업보조금 Project Grants	60,684,700	24.4%
일자리안정자금 Job Support Subsidy	5,632,240	2.3%
참가회비 Participation Fee	160,000	0.1%
기타수입 Others	155,485	0.1%
합계 Total	248,757,8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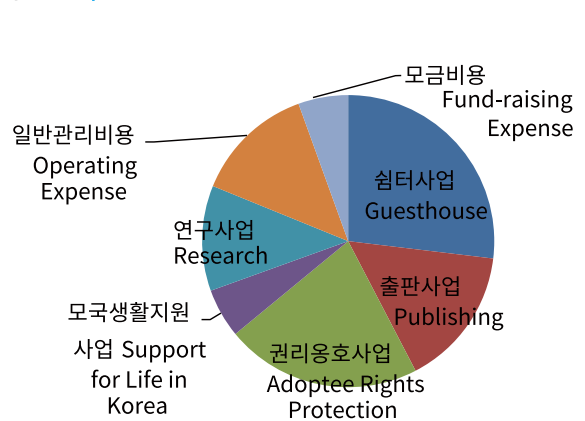
수입항목

후원금: 개인후원금, 단체(기업, 교회)후원금
 사업보조금: 아동권리보장원/서울시/FFEC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기타수입: 게스트세탁비 등

지출항목

쉼터사업: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출판사업: 입양 및 아동의 권리옹호 관련 서적 출판 사업비
 권리옹호사업: 입양인 및 아동권리 옹호사업비
 모국생활지원사업: 해외입양인의 국내생활지원 사업비
 연구사업: 입양 및 아동의 권리옹호 등 관련 연구 사업비
 일반관리비용: 회계 및 법인운영 관련 비용
 모금비용: 후원금 모금 관련 비용

지출 Expenditures



	금액(Won)	비율(%)
쉼터사업 Guesthouse	63,612,673	26.9%
출판사업 Publishing	36,579,575	15.5%
권리옹호사업 Advocacy	51,248,523	21.7%
모국생활지원사업 Support for Life in Korea	12,896,664	5.5%
연구사업 Research	27,578,750	11.7%
일반관리비용 Operating Expense	31,501,660	13.3%
모금비용 Fundraising Expense	13,064,023	5.5%
합계 Total	236,481,868	100%

Details of the Revenues

Donations: donations from individuals or organizations(corporates, churches, etc.)
 Project grants: grants from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amily for Every Child
 Job Support Subsidy: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Others: Guest's washing fees, etc.

Details of the Expenditures

Guesthouse: Expenses for managing guesthouse
 Publishing: Expenses for publishing books on adoption or child rights
 Advocacy: Expense for advocacy for adoptee's and child's rights
 Support for Life in Korea: Expense for supporting adoptee's life in Korea
 Research: Expenses for research on adoption or child rights
 Operating Expense: Expense for accounting or managing legal entity
 Fundraising Expense: Expenses for fundraising activities

2020년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all the donors who donated in 2020.

개인 후원 Individuals

강민경	강소부	강순희	강이레	강창희	강태리	경선숙	고우현	고혜연	구본현	권미향	권병완	권이영
권재문	권혜윤	기현두	김강경	김경옥	김길자	김도현	김동제	김두연	김명옥	김미나	김미순	김민석
김민승	김상미	김상수	김상훈	김선명	김선정	김성무	김성희	김소영	김수정	김순자	김순희	김승민
김신애	김신정	김연숙	김영규	김영무	김영아	김영애	김영인	김영자	김영혜	김영혜2	김영호	김원우
김유경	김유경	김은영	김은혜	김이경	김인자&도장록	김인자&송원용	김인중	김정섭	김정옥	김종원		
김종택	김주호	김지혜	김지혜2	김진	김진2	김진석	김진영	김진오	김진희	김창선	김창호	김태운
김태형	김현숙	김현정	김형범	김혜령	김혜원	김홍주	김효미	김희수	나윤도	남경완	노경숙	노정화
노현승	노혜련	노희정	도미니크 로바크	도민정	류정희	류지원	류태우	마은주	문정후	민경원	민현식	
박경서	박경준	박동진	박병옥	박세경	박세일	박승옥	박연미	박원호	박윤분	박윤영	박인우	박재란
박재영	박재영	박재환	박지호	박진규	박찬엽	박창우	박행진	박형근	반철진	방옥희	배한성	백경학
백은옥	백창기	서여정	서용환	서일옥	성명자	성수민	성우현&공정임	성희숙	소라미	손영규	손정일	
손정임	손준호	손혜원	송미자	송정향	송종우	송주호	송준현	신남	신윤철	신호철	심금주	심재옥
안광수	안기성	안미애	안혜영	양용운	양혜정	염상빈	염은미	염혜경	오누리	오영나	오좌근	옥화선
우영자	우제은	원영자	유명애	유문선	유서구	유은정	유지영	유진월	육동신	윤경로	윤권영	
윤소연&윤채우	윤택현	이강훈	이경미	이경연	이경은	이경희	이기철	이나	이덕래	이동수	이미경	
이미정	이상규	이선경	이선숙	이철아	이성실	이성엽	이세희	이소정	이소희	이수민	이숙연	이승리
이승찬	이승희	이양재	이연순	이연희	이영근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은옥	이인의	이재현	이종희
이주혜	이지윤	이지혜	이철우	이현주	이호범	이호연	이희택	임병근	임웅기	임재환	임창규	임희국
임희중	입양인일동	장광섭	장병인	장애경	장재성	전군식	전연옥	전응림	전종한	정경아	정경환	
정다원	정도출	정순이	정연도	정연숙	정영자	정원기	정일수	정재은	정정숙	정종훈	정지석	정찬양
정창숙	정향진	정혜원	조계순	조남경	조미정	조수언	조영현	조윤미	조윤실	조현산	조형	조효민
조호제	주영근	주혜주	채수경	최도영	최미영	최영웅	최용숙	최윤희	최진경	최형숙	최홍준	추동미
추송미	추창엽	하태규	한병화	한석준	한순웅	한승희	한태순	함영연	허욱	홍두표	홍민표	홍성규
홍성애	홍수미	홍종순	황경희	황선미	황성영	황은하	황필규	익명의 후원자4인				

Anja Pedersen	David Granholm	Doris Kim	Edan Koh	Erwin Banteli
Lauren McCullough	Marc Champod	Myung Sook Traber	Richard Anderson	Scott Adam Kaveny
Soo Sophia TenEyck	Stoker Kim	Sylvia Lee	Tammy Ko Robinson	Timothy Bo Yee

기관단체 후원 Organizations

(주)달개비	(주)대광에스원	(주)레보스톤	(주)배론	(주)엔아이디에스
Give2Asia	JCCC(기쁜우리교회)	Kirchlindach Kirchgemeinde		SF베이글
VOKAD 편집부	강남새사람교회	고려농상(주)	구포교회	국제소름티미스트
서서울클럽	길가에교회	다빈치디자인	미래로교회	밀알회
산본교회	새문안교회	살롬교회	수동교회57여전도회	수산교회
수원온누리비전교회	신창교회	양무리교회	익수스교회	조은교회
추성회	코람데오	평화교회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헤르만의정원	화우공익재단	햇불교회		

자원활동 Volunteers

(번역 및 통역 Translation & Interpretation) 김연희 김지승 신화정 김민정 수잔제이 박다윗 이종진 케이티조 제니나 한분영 크리스박 채선도 최윤희

(뿌리의집 자원활동 연합 JOY) 김상훈 송주호 서용환 민경원 박지호 정다원 조효민 이수민 김태운

뿌리의집은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애쓰는 해외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지정대상단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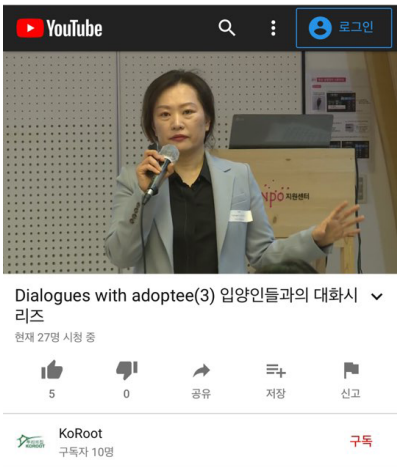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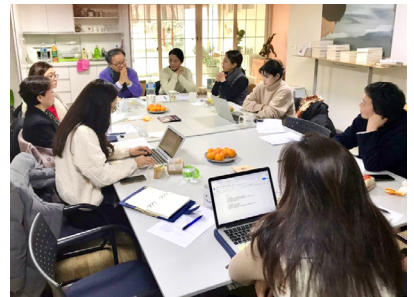
- ◆ 자동이체후원(CMS) : CMS란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로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회비를 출금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뿌리의집 홈페이지 후원신청 및 직접 연락 신청.(출금일 매월 24일)
- ◆ 카드후원 : 카드납부 시 1.87%의 수수료 공제 후 입금. 뿌리의집 홈페이지 후원신청 및 직접 연락 신청.(승인일 매월 20일)
- ◆ 개별 입금 및 은행 자동이체 등록: 직접 입금 및 자동이체 등록.
신한은행 : 100-019-570796 예금주 : 사단법인뿌리의집
국민은행 : 343601-04-006975 예금주 : 사단법인뿌리의집
- ◆ 뿌리의집 홈페이지 후원신청 >> www.koroot.org

* 해외에서 후원신청 [Donation From Abroad](#)
Give2Asia >> <https://give2asia.org/koroot/>
Paypal : koroot11@gmail.com

[후원문의] 02-3210-2451 admin@koroo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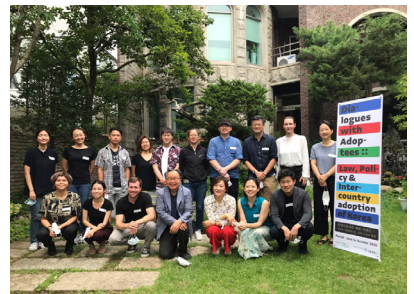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컨퍼런스

The 1st Adoption Truth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입양인들과의 대화시리즈

Dialogues with Adoptees





뿌리의집과 함께한 사람들
People of KoRoot

입양진실의날 선언문 낭독 Declaration on Adoption Truths Day





0303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25-10
125-10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1, Korea
Tel +82-2-3210-2451
Fax +82-2-3210-2453
E-mail admin@koroot.org
Homepage www.koroot.org
Guest House www.korootgh.com
페이스북(Kor) www.facebook.com/Koroot
Facebook(Eng) www.facebook.com/groups/koroot